



피지컬AI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

16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열린 '전북·경남 피지컬AI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에서 고정삼 전북도 경제부지사와 정동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 전국 최초 ‘피지컬AI 실증단지’ 선정

2030년까지 7,368억원 투입
완주에 핵심 실증인프라 구축
제조·물류AI 전환 실증 본격화
이기종 로봇 협업 SW플랫폼 개발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한 2026년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에서는 고정삼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정동영 국회의원,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최만립 경남도 경제부지사, 연구개발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 사업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전북·경남 피지컬AI R&D가 바꿀 제조 현장을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차석원 서울대 교수와 장영재 KAIST 교수가 지역별 피지컬AI 연

구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사업의 출발을 알렸다.

공모 선정으로 전북은 본격적인 피지컬AI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연구개발부터 산업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한 지역에서 연계되는 피지컬AI 실증단지를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지역이 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368억 원(국비 5,150억·지방비 862억·민자 1,356억)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피지컬AI 핵심기술 개발부터 기술 실증을 위한 개방형 연구인프라 조성까지 6대 분야, 총 12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전북대·KAIST·성균관대·라온시큐어·캠텍종합기술원 등이 과제별 주관기관을 맡는다.

도는 이날부터 전북대 등 관계 기관과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사전기획 용역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북대와 캠텍종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으며, 전북대는 ‘피지컬AI 제조·물류 특화 공장 운영체계 기반 통합 연구·실증’ 과제와 ‘개방형 연구클러스터 조성’ 과제를, 캠텍종합기술원은 ‘핵심 연구인프라 구축 및 피지컬AI 핵심 기술 확산’ 과제를 각각 총괄 주관기관으

로 수행한다.

전북은 이기종 로봇이 함께 판단하고 협업하는 SW플랫폼을 개발하고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공동연구개발센터·NPU 기술실증 스테이션·실증메타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장정철 기자

〈특별 인터뷰〉 이원택 지사 “피지컬AI 거점 선점 전북 산업지도 바꾸겠다”

기술개발 넘어 산업화까지 연결
제조·농생명산업 생태계 구축
기업 성장·일자리 확대 연계
전북 전역으로 성과 확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피지컬AI 실증단지 조성에 나서게 된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을 전북 산업 전반의 전환점으로 내다봤다.

이 지사는 최근 본보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전북이 전국 최초로 피지컬AI 실증단지를 조성하며 대한민국 피지컬AI 산업의 선도 거점을 선점했다는 데 있다”며 “단순히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개발된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검증하고 적용해 산업화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산업통상부 등과 연계해 국산 로봇과 핵심부품의 실환경 검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K-로봇 피지컬AI 실증공동유센터 구축 사업도 별도로 추진 중”이라며 “이번 국가공모 사업과 맞물려 전북의 피지컬AI 기반이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협력 방안과 관련, 그는 “공모 사업과 관련해 도내 기업 등이 다른 과제에도 참여해 함께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도와 전주시, 완주군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피지컬AI 핵심기술 확보와 현장 실증, 확산을 위한 생



태계를 조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피지컬AI를 도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창출, 일자리 확대 등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해 전북의 경제 생태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업 성장과 투자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구상을 놓고 이 지사는 “새만금의 AI·로봇 등 핵심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북의 제조 산업과 농생명산업, 대학·연구기관을 하나의 피지컬AI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각 지역의 산업 기반에 피지컬AI를 접목하고, 지역에서 검증된 기술과 성과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을 피지컬AI 기술 개발 지역에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실증하고 산업화하는 대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한국새농민 전북도회, 추석 맞아 성금 500만원 기탁

2015년부터 어려운 이웃에 ‘온정’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에 전달

전북도는 16일 도청에서 (사)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한강희 (사)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장, 김성훈 농협중앙회 전북지역 총괄본부장, 민선식 도 국장, 이인영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은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기탁금은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쌀과 농산물꾸러미, 성금 등을 기부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도는 이번 기탁이 농업인단체의 지역 사회 상생과 나눔문화 확산에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민간과 연계한 사회공

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눔행사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익 산 시 농 특 산 물 공 동 브 랜 드

익산의 푸른인증

탑마루

TOP MARU

국보 제299호 왕궁리유적왕궁리오층석탑

전북도, 17억 규모 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어민 2,956명 대상 확정 순차 지급
1인 경영체 연 60만원 지원
2인 이상 1인당 연 30만원

전북도가 도내 어민 2,956명에게 총 17억원 규모의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도는 지난 8월 25일 '수산업·어촌 공

익적 가치 지원사업(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인 경영체에는 연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에는 1인당 연 3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시·군·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약 3,900명을 접수했다. 이후 거주 기간과 어업경영체 유지 여부, 실제 어업 종사 여부, 지급 제외요건 등을 확인해 최종 2,956명을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실제 어업

에 종사한 어업인이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이나 농민 공익수당 중복 신청 등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수당을 지급받은 어업인은 어업 인·허가 등 어업경영 요건을 유지하고,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실천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

/장정철 기자

‘열린 도지사실’ 2차 시범운영…도민 체감 소통 강화

전북도, 17~23일 참여 신청 접수
10월 중순 현장 대화 진행
의견 청취 후 후속조치 연계

전북도가 도민이 도지사에게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열린 도지사실’ 2차 시범운영에 나선다.

도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도청 누리집 ‘열린 도지사실’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난 2일 1차 시범운영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열린 도지사실은 도민의 목소리를 도지사가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

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나 관련 기관을 둔 도민으로, 도청 관련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지역 현안, 생활 속 불편사항 등 도지사와 직접 대화가 필요한 사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은 도지사와의 직접 대화 필요성, 내용의 구체성, 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대화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인신차탈락, 계약·인허가 등 사적 이익을 요구하는 사항 △재판·수사 등 별도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정당·정치인 관련 등 정치적 성격의 사항 △단

순 비방·폭언·욕설·협박 등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사항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 △시·군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 △도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도민과의 현장 대화는 10월 중순 도청 1층 ‘열린 도지사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선정된 도민에게 개별 안내한다.

특히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은 단순 청취에 그치지 않고 소관 부서 검토와 필요한 후속조치로 연계한다. 현장 대화에서 다루지 못한 의견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뒤 처리 방향과 결과 등을 신청

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2차 시범운영을 통해 도민 참여 과정과 현장 대화, 후속조치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열린 도지사실’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진경 전북자치도 소통기획과장은 “열린 도지사실이 도민의 목소리가 도청에 보다 가까이 전달되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며 “도지사와 직접 대화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이성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법 발의 “전북 청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것”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피지컬AI·양자기술 특성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담당할 「전북과학기술원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새만금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비롯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집적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업의 투자를 전북의 지속적 성장과 청년 일자리로 연결하려면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기반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은 전북과학기술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학사부터 박사까지 학위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피지컬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양자과학기술, 제조 인공지능 및 무인·자율화 제조시스템 등



이성윤 의원

을 특성화해 교육·연구·산업현장 실증 역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기업과 공동교육과정 및 공동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연구성과의 실증과 기술사업화, 교육·직업·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이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대차를 비롯한 첨단기업의 투자를 전북의 산업 대전환으로 이어가려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만들어낼 연구 역량과 인재가 전북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전북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박지원, 문화 향유권 디지털로 넓혀 배리어프리 문화유산 특별전 개최

20~21일 국회의원회관서 선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청각 장벽을 완벽하게 허문 혁신적인 디지털 문화유산 특별전이 개최된다.

박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3D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 기업 위프코(주)와 조준동 작가(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공동 주최하고 (재)문화유산기록보존연구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후원하는 ‘K-컬처, 경계를 넘어 기술로 잇다-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 사유의 현대적 해석 특별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명작의 철학적 메시지를 AI와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포용적 전시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서양의 ‘생각하는 사람’이 지닌 치열한 고뇌와 동양의 ‘반가사유상’이



박지원 의원

보여주는 초월적이고 자비로운 사유를 현대인의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치유와 공존의 변증법적 스토리텔링도 제시된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구현한 ‘무장애(배리어 프리, Barrier-free)’ 관람 환경이다. 눈으로만 보아야 했던 기존의 관람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유산 정밀 3D 스캔 데이터와 고해상도 3D 프린팅 기술을 융합해 제작한 ‘촉각 모형’을 전시장 전면에 배치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관람객이 원본의 디테일을 손끝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장애인들에게는 일상을 SNS로 공유할 수 있는 포토존으로 구성하

한병도 “전북, 초등 급식 식품비 최하위권”

중·고교도 전북 최저 수준
서울·대전 초등 한 끼 933원 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의 초등학교 한 끼 급식비(식품비)와 대전의 급식비 차이가 무려 1000원이었다”고 공개했다.

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초등학교 1인당 한 끼 식품비는 서울이 4,5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이 3,620원으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 격차는 933원에 달했다. 서울과 대전의 지난 2025년도 기준 초등학교 식품비 격차는 775원이었으나, 1년 만에 158원(20.4%) 확대됐다.

또 중학교는 476원에서 579원으로 21.6%, 고등학교는 696원에서 847원으로 21.7% 늘어, 초·중·고 전 학교급에서 격차가 20%대로 동반 확대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서울에 이어 △충북 4,322원 △경북 4,320원 △세종 4,295원 △제주 4,220원 순으로 높았고, 대전(3,620원)에 이어 △대구 3,770원 △전북 3,827원 △인천 3,933원 순으로 낮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두 경기(5,047원·5,417원)가 가장 높고 전북(4,468원·4,570원)이 가장 낮았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 식재료비(친환경·지역산·non-GMO·현물 등)로 구성된다.

이 중 교육청이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만 놓고 보면 격차는 더 크게



한병도 의원

벌어진다. 2026년 초등학교 기준 서울이 4,498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북은 2,820원에 그쳐, 1,678원(59.5%)의 차이가 발생했다. 총액 기준 격차(933원)의 1.8배에 이르는 수치다. 중학교(1,351원)와 고등학교(1,550원)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됐다.

지자체의 추가지원 여부에 따라 순위 자체가 뒤바뀌기도 했다. 경북은 기본 식품비가 2,820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지만, 지자체가 1,500원(전체의 34.7%)을 추가 지원해 총액 기준으로는 전국 3위(4,320원)에 올랐다.

광주 역시 기본 식품비는 2,950원(16위)이지만 지자체 지원 1,000원이 더해져 3,950원이 됐다. 반대로 대전은 기본 식품비가 3,240원(13위)으로 중위권이나 추가지원이 380원에 그쳐 총액 기준 전국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결국 학생이 받는 한 끼의 질이 교육청 예산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의지에 좌우되는 구조인 셈이다.

한 의원은 “교육청이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만 놓고 보면 초등학교 기준 격차가 1,678원까지 벌어지고, 그 간극을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메우는 구조”라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의지가 아이들의 한 끼를 가르는 또 다른 불평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본사 내방

- △ 한민희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 △ 오임선 전북도 대외국제소통국 협력과

-2026년 9월 16일-

고, 동서양의 ‘사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밖에도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채로운 국가유산의 다양한 콘텐츠가 함께 전시되어 K-전통문화의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배리어프리 전시 주관 배경에 대해 “문화 향유권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배리어프리

특별전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의 문턱을 낮추고 포용적 K-컬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과 문화유산 콘텐츠가 결합해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가을철 교통사고 예방법

01

피곤할 땐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최소 10분간 쉬어가기

02

졸지 않기 위해 카페인, 짭짤 음식물 섭취하기

03

장거리 운전시 2시간에 한번 쉬기

04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산소 마시기

05

앞차가 졸음 운전 할땐 경적소리로 주의 주기

졸음센터

ZZZ

전북 금융타운 조성 ‘본격 시동’

전북도·전주시 오라이언자산운용 컨소시엄, 금융타운 조성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가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주시, 오라이언자산운용컨소시엄과 ‘전북 국제금융센터 등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원택 전북자치도 지사, 조지훈 전주시장이 참석했다.

컨소시엄 측에서는 김병기 오라이언 자산운용 대표와 문성철 KB증권 IB3그룹장, 서정우 대신증권 PF3부부장, 장승식 키움증권 구조화금융3본부장, 조인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체운용부문대표, 정영균 허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진행된 금융타운 조성사업 공모에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오라이언자산운용컨소시엄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실행 단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컨소시엄에는 KB증권을 비롯해 오라이언자산운용, 대신증권, 키움증권, 트

러스톤자산운용, 허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국내 유수의 금융·설계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협약당사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선정 후 출자와 부지 확보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며, 전주시는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오라이언자산운용은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사업 기획과 자금 운용을 총괄하고, KB증권·대신증권·키움증권은 재무적 투자자(FT)로서 출자 참여와 투자자 모집, 금융추진을 담당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금융조달을 지원하며, 허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전략적 투자자(ST)로서 마스터플랜 수립과 설계, 건설사업관리(CM)를 맡아 사업 전반을 뒷받침한다.

금융타운 조성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인근 부지 약 3만 3,257㎡에 6,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2030년까지 국제금융센터와 호텔·컨벤션, 소호오피스 등을 구축한다.

그동안 사업성 확보 문제로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재무적 안정성과 실행력을 갖춘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타운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원택 도지사와 조지훈 전주시장, 김병기 오라이언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여했다.

<사진=전북자치도>

도는 앞으로 전주시와 협의해 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선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라이언컨소시엄 관계자는 “참여기관 최고 수준의 금융·개발 전문성과 역량을 투입해 전북 금융산업의 랜드마크가 될 금융타운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지역 금융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오랜 기간 도민들이 염원해 온 금융타운 조성이 마침내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인프라를 조속히 완성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드시 이루어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장정철 기자

<농업 연구 개발 기술>

농진청 R&D 기술, 청년농가 기술창업 지원 확대

자체 개발 기술 현장에 접목… 경영비 낮추고 소득원 넓힌다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농업 연구 개발(R&D) 기술을 청년농업인 현장에 접목해 생산비를 낮추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기술창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6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의 청년농업인 딸기농장을 찾아 농업기술을 활용한 경영 효율화와 소득 증대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청년농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농진청이 개발한 ‘시설 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시범사업을 도입해 연간 비료 구매 비용을 22%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술은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포함한 양액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농가는 생산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농업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경영모델도 구축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기술적 자립과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된 뒤 딸기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딸기 생육 과정

을 소재로 한 창작 아동 뮤지컬을 공연하는 등 농업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있다.

단순 농산물 생산에서 벗어나 체험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이 청장은 이날 청년농업인들과 농진청 R&D 기술 도입에 따른 농장 운영 효과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생산 중심 농업을 넘어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미래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진청은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농업기술을 청년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창업 법인이나 조직체 등

에 이전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역량과 혁신적 사고는 농업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할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 R&D 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경기도 4-H연합회 회원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농업인의 기술적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정읍시, 과수 농가 사다리 추락사고 예방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안전수칙 현장 지도

배와 사과 수확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읍시가 과수 농가의 사다리 추락사고 예방에 나섰다. 시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3차 상담(컨설팅)을 통해 사다리 벌어짐 방지 끈을 설치하고 수확기 안전수칙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다.

과수 수확기에는 나무 위쪽의 열매를 따기 위한 사다리 작업이 크게 늘어난다. 사다리는 농작업 중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사다리 다리가 벌어지거나 경사면 과수원 바닥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과수원 현장에 투입해 사다리 벌어짐 방지 끈을 직접 설치하고 있다. 방지 끈은 사다리 양쪽 다리를 단단히 잡아줘 작업 중 다리가 벌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로, 설치가 간단하면서도 추락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

안전관리자들은 방지 끈 설치와 함께 농업인의 실제 작업 모습을 살펴보고 사다리 설치 각도와 지면 상태 확인, 3점 지지 자세 유지, 작업 중 무리하게 몸을 뻗는 행동 자제 등 안전수칙을 지도하고 있다.

이번 현장 지도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한다.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배와 사과 수확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읍시가 과수 농가의 사다리 추락사고 예방에 나섰다.

<사진=정읍시>

1억 원을 투입하며, 사고와 질병에 취약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지역 농업경영체 115농가가 참여한다.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농가를 직접 방문해 작업별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상담으로, 농가당 3회 이상 방문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계절과 작목별 농작업 일정에 맞춰 상담 내용도 달리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중점을 두고 병감 도시와 병감 목밴드를 보급하는 한편, 무더위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도했다. 수확기에 접어들면 현재는 사다리 작업과 농기계 운행 안전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상담을 통해 총 853건의 위험·유해 요인을 찾아 이 가운데 629건을 개선해 73%의 개선율을 기록했다.

3차 상담에서는 사다리 벌어짐 방지 끈과 방우형 콘센트 등 안전·보호용품 7종을 보급하고 있으며, 다음 달 9일까지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확기에는 사다리 작업이 늘어나는 만큼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작업 시기에 맞춘 현장 상담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수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은행, 2026 추석맞이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16일 전주금융안인복지관에서 2026 추석맞이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 및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전북은행 강강조 부행장을 비롯해 리스크관리부, 신용분석부, 여신감리부, 준법감시부, 자금세탁방지부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이 날 전북은행 임직원들은 재가복지 및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250만원 상당의 계란 400판을 전달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복지관 시설 환경정비에도 참여하며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작게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가장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폭우 재해구호기금 전달

경남본부에 성금 전해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과 전북특별자치도조합운영협의회 위원장(부안농협 김원철 조합장·농협중앙회 수석이사)은 지난 15일 농협 경남본부를 방문해 폭우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전북특별자치도 92개 농축협이 함께 조성한 ‘재해구호기금’으로 각종 재해 등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실의에 빠진 경남지역 농가

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전달됐다.

김성훈 전북본부장은 “대한민국 모든 농민의 애환을 함께 하는 것이 농협이 할 일이며 자연재해로 상심이 큰 경남 지역 농업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원철 농협중앙회 수석이사 “농심이 곧 천심이라는 마음으로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농협 간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자”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최준호 기자

도로공사 전북본부 ‘어르신과 케이크 만들기’

3년 연속 봉사활동 진행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정병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5일 전주시 노인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전북본부 직원 15명이 참여해 어르신 40여 명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으며, 완성된 케이크는 어르신들이 직접 포장해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전북본부는 2024년 연세 봉사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준호 기자



<사진=신협중앙회>

신협,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 지원

긴급구호 성금 5만 달러 전달

신협중앙회(회장 고영철, 이하 신협)는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5만 달러의 긴급구호 성금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아시아신협연합회(ACCU) 사무국에 전달돼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네 팔 신 용 협 동 조 합 중 앙 회(NEFSCUN)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현지 35개 신협이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협은 지난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10만 달러를 기부하고, 구호물품 지원 및 현지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긴급 지원은 대지진 구호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국신협과 네팔신협 간 오랜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신협은 네팔뿐 아니라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인도적 지원을 이어왔다.

2017년 스리랑카 홍수 피해 복구에 2만 달러를 전달했고, 2020년 호주 산 불 피해 복구에 10만 달러, 같은 해 베트남·필리핀 홍수 피해 복구에 5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포용금융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과 현지 신협 조합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협동조합의 연대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 유치원 대체교사 ‘0명’ 인력 공백 심각

김준혁 의원 “전국 확보 인원 190명 불과·전원 비정규직 지역 격차 극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대체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북을 포함해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대구 등 7개 교육청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은 ‘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유치원 대체인력은 총 190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정규직 없이 전원 강사와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서울이 54명을 확보한 것과 달리 대다수 지역은 한 자릿수에 머물거나 전무해 지역별 격차가 컸다.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고용 환경 역시 불안정했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어린이집 대체교사 2,304명 중 정규직은 10명(0.4%)에 불과했다. 기간제 계약직이 1,847명(80.2%), 무기계약직이 447명(19.4%)으로 집계돼 99%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

대체교사의 부족과 불안정한 신분이 현장 교사의 연차·평가 사용을 제한하고 보육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준혁 의원은 “교사가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 없는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 보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교사 공백을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규직 전환 등 치우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 선유도, 고려시대 해양거점 도시 증명

고려시대 건물지 확인
승녕중보 등 유물 출토

군산시는 선유도 망주봉 일원에서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객관 및 자복사(추정) 관련 유구(遺構) 및 승녕중보, 막새기와, 전돌을 비롯한 다수의 유물이 출토됐다고 밝혔다.

선유도는 고려시대에 군산도(群山島)라 불렸던 곳으로, 1123년 송나라 사신 서금이 고려를 방문하며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당시의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군산도에는 왕이 행차했을 때 머무는 숭산행궁(崇山行宮)과 대규모 영접 행사가 열렸던 군산정(群山亭), 사찰인 자복사(資福寺)를 비롯해 제사 시설인 오묘묘, 사신이 머물던 객관 등 국가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었다. 특히 서금 일행이 방문했을 당시, 고려 수도 개경에서 내려온 김부식(金富軾)의 주관으로 대규모 영접 행사가 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는 국립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초석 및 기단, 적석을 비롯한 고려시대 대규모 건물 흔적이 명확하게 발견됐고,기와와 청자, 도기 등 다수의 고려 유물이 출토됐다. 출토 유물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승녕중보(崇寧重寶)’라는 동전이다. 이 동전은 서금이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휘종 연간(1100년~1126년)에 발행된 중국 동전으로, 당시 고려와 중국의 국제 외교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함께 출토된 막새기와와 전돌은 당시 격이 높은 건물에만 사용됐던



건축 부재다.

이는 그 존재만으로 당시 군산도의 위상이 높았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유물이 출토됐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가치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문헌 기록에 존재했던 군산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매우 귀중한 학술 자료가 확보됐다”고 전하며, “향후 발굴조사 및 정비를 통해 군산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한국 레슬링 전설’ 안천영·안한영 형제, 체육 소장품 기증

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메달 등 200여 점 전달

한국 레슬링의 기틀을 다진 안천영·안한영 전 국가대표 감독 형제가 ‘전북체육 역사기념관’ 조성을 위해 소장품 200여 점을 쾌척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군산 출신인 두 지도자는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은메달과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비롯해 주요 대회 상패, 기념품, 기록 사진 등 평생 보관해 온 유물 약 200점을 전달했다.

형 안천영 전 감독은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 출전과 1969년 세계선수권

은메달 획득에 이어 1988 서울올림픽, 1990 베이징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이끌었다. 동생 안한영 전 감독 역시 제7회 테헤란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로 활약한 뒤 그레코로만형 대표팀 감독과 삼성생명 감독 등을 역임하며 후진을 양성했다. 이날 체육회관 3층에서는 기증품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수장과 완공식도 함께 열렸다. 전북체육회는 수장과 내 항온항습 설비를 갖추고 공간을 확장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한국 레슬링의 전설적인 주역들이 소중한 소장품을 흔쾌히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전북체육 역사의 자산으로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남부시장, 상생 평생학습 ‘맞손’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전주대학교가 전주남부시장과 손잡고 상인과 지역주민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에 나선다.

전주대 RISE사업단 평생학습지원센터는 16일 대학본관 세미나실에서 전주남부시장 백년시장 특성화사업단과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및 상권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인과 종사자, 주민을 대상으로 AI·디지털, 경영·마케팅, 창업, 고객서비스

등 현장 중심의 비학위 교육과정

을 개설해 운영한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교육 수요를 공동 발굴하고, 대학 구성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전주대 평생학습지원센터는 전문인력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남부시장사업단은 상인과 종사자의 참여 연계를 맡는다.

송해근 평생학습지원센터장은 “대학의 교육 역량을 시장 현장에 연결해 지역 평생학습의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김제시, 연이은 전국대회 “골목상권 활기

김제시가 9월 연이은 전국대회 개최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과 관계자 등 3,000여명에 이르는 선수단과 관계자 등이 식당, 카페, 숙박시설 등의 수요를 증가시켜 모처럼 김제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각종 전국대회 개최로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김제시만의 특색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김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윤봉기 기자

전북교육청, 교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직무 스트레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정서적 치유를 돕기 위해 숙박형 힐링 프로그램 ‘함께 휴(休)’를 운영한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교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교육활동 동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치유가 필요한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당 40명씩 총 280명이 참여한다.

지난 4월 순창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늘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안에서 숙박형 치유 과정을 진행한다. 오는 11월에는 정읍에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원 위기 대응을 위한 ‘예방-지원-치유-회복’ 전주기 교육활동



<사진=전북교육청>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김진덕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겪는 심리적 상처를 혼자 감당하지 않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활동 보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가을철 호흡기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1. 외출 후 손 씻기



2. 마스크 착용하기



3. 실내습도 조절 (50~60%)



4. 충분한수분 섭취



익산시립예술단, 오는 10월 두 가지 매력의 공연 선포

익산시립예술단이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공연부터 시민 일상으로 찾아가는 야외공연까지 서로 다른 매력의 무대를 잇달아 선보인다.

익산시는 시립예술단이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익산예술의전당과 중앙체육공원에서 각각 브랜드공연과 야외콘서트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내달 2일 오후 7시 30분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는 2026년 익산 브랜드공연 ‘West & East(서쪽남자 & 동쪽여자)’가 펼쳐진다.

공연은 익산의 대표 설화인 ‘서동설화’를 바탕으로 시립합창단·무용단·풍물단 등 3개 예술단 전체 단원이 참여해 서동과 선화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풀어낸다.

다음 날인 내달 3일 오후 3시 30분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다이어로콘서트’가 열린다. 공연장을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열린 야외공연이다.

현장에는 빈책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다양한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공연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며, 마뽕이 탈 인형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다iero 콘서트는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서 어린이 안전그림 공모 9개 시·군 1000여 명 참여

전북 9개 시·군 영유아 620명이 정읍시 기적의놀이터에 모여 일상 속 안전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교직원 380명도 함께해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을 나눴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단체 등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모용희)는 지난 15일 정읍시 기적의놀이터에서 ‘어린이 안전그림 공모전’을 열었다. 행사는 어린이들이 그림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생활 속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임실·고창 등 도내 9개 시·군 어린이집의 영유아 620명과 교직원 380명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을 주제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생활 속 안전의 의미를 되새겼다. 교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심과 책임을 나눴다.

이학수 시장은 “도내 9개 시·군의 어린이와 교직원들이 정읍을 찾아 함께한 뜻깊은 행사였다”며 “기적의놀이터가 정읍을 넘어 도내 어린이들이 찾는 대표적인 놀이 공간으로 자리 잡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보건소,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운영

익산시가 시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교육을 운영한다.

익산시보건소는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에 참여할 사업장과 복지관 등 5개소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원광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교수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과 생활 속 예방관리 방법 등을 안내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1대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적인 의학 정보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연계해 교육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실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과 복지관, 지역 사회 기관 등은 익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정과 세부 내용은 신청기관과 협의해 진행한다.

한편, 익산시보건소는 매주 수요일 오전 보건소 1층에서 ‘내 혈압·내 혈당 숫자 알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추석 앞두고 도시 환경 단장” 2(題)

익산시, 주요 도로·하천 정비

익산시가 추석을 맞아 주요 도로와 하천 일대를 단장해 귀성객과 시민을 맞는다.

익산시는 주요 도로와 강·만경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로 분야는 지난 1일부터 시내와 외곽 주요 도로 21개 노선을 대상으로 약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노면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도로보수원 18명과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현장에 투입해 도로면 풀베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천 정비는 금강·만경강 국가하천과 탐천·익산천·여량천 등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제방도로와 산책로, 자전거도로에 자란 잡풀을 제거해 수변 경관을 정돈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시야를 확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추석 전까지 도로와 하천 환경정비를 마무리해 연휴 기간 익산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주요 도로와 하천을 세심하게 살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7개 지구 미관 개선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귀성객과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7개 지구에서 예초와 환경 정비에 나섰다.

정비 대상은 남산·평화·중사·입석·신흥·대실·당현 등 7개 지구다. 이들 지구에는 소공원 18곳과 공영주차장 23곳이 조성돼 있어, 시는 추석 연휴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수목을 정비해 통행 불편과 해충 발생을 줄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추석 연휴 동안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초와 주변 환경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작업에 앞서 현장 점검을 통해 지구별 관리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접수된 민원 내용을 반영해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지구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석 연휴 동안 귀성객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 미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조 70억원 규모

제1회 추경예산 의결

익산시의회의(의장 김충영)가 16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실시해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2조 7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김충영 의장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순문선 의원)을 채택했다.

김충영 의장은 “확정된 추경예산이 추석 전후로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명절 연휴 기간 시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고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그리고 “각정은 잠시 털어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재현 의원-지방재정 운용 원칙 확립과 재정건전성 회복 촉구 ▷장경호 의원-경로당을 디지털 복지공간으로! 와이파이 구축 촉구 ▷박철원 의원-결산의 교훈을 익산 대전환으로 ▷황두관 의원-스쳐가는 공원에서 머무는 광장으로! 배산보훈어린이공원의 도심문화광장 전환 제안 ▷김미선 의원-늘어나는 평화동 인구, 행정복지센터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강도 높은 ‘재정대전환’ 시동

재정혁신 기구 분과회의

마무리… 로드맵 구체화

민선 9기 익산시가 관행적인 낭비 요소를 과감히 걷어내고 민생과 미래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재정 혁신 의지를 담아 지난 8월 출범한 ‘익산시 재정대전환 추진단’이 3개 분과별 심층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재정 개혁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세출구조조정 △세입확충 △투자사업 등 3개 분과 회의를 잇달아 열고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했다.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되던 예산

의 효과를 냉정하게 검증하고, 아낀 재원을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장과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세출구조조정분과’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축제와 행사를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매년 답습해 온 선심성·일회성 행사와 축제를 과감히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지역사회상품권과 인구정책 등 주요 사업도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시에 권고했다.

단순 감액을 넘어 부서 스스로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는 강력한 자구책도 주문했다. 특히 사업별 성과와 시민 체감도를 면밀히 살펴 예산 절감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입확충분과’는 숨은 세원 발굴과 고질 체납액 징수 강화, 공공시설 사용

료·수수료 현실화, 유류 공유재산 활용 등 자체수입 확대 방안을 폭넓게 모색했다.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 자체수입을 지속해서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중점 점검했다.

‘투자사업분과’는 내년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기대효과, 준비도를 엄격히 따졌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투자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정리했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분과별 결과를 취합한 뒤 다음달 중 총괄 운영위원회를 열어 재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한다. 권고안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반영되며, 추진단은 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74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하세요”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8천 건, 274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신축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6억 원)보다 8억 원(3%) 늘었다. 부과 건수 역시 지난해 8만 5천 건보다 3천 건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

되는 지방세다. 이번 9월 정기분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부과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 방식을 나누어 적용한다.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 9월 고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위태스와 지로를 비롯해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가 있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와 현금자동입출금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한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800원,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보름달 아래 올리는 ‘정읍농악’

23일 천변서 한마당

정읍시가 추석을 맞아 오는 23일 오후 7시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에서 ‘추석맞이 정읍농악 보름달에 물들다’ 공연을 연다. 화려한 판굿과 개인놀이ga 어우러져 시민과 귀성객에게 신명 나는 우리 가락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60분 동안 진행되며 비가 오면 장소를 정읍시예술회관으로 옮긴다.

무대에서는 오채질굿과 오방진굿, 농부가, 호허굿을 비롯해 부포놀이, 설장구, 고깔·채상소고, 12발상모 등을 선보인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판굿과 개인놀이가 조화를 이루며 추석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현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정읍시



<사진=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see’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을 맞아 정읍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신명 나는 정읍농악을 함께 즐기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어민 공익수당 추석 명절 전 지급

어업인 957명 대상

5억 7,180만 원 규모 지원

군산시는 지역 내 957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정책 수당이다.

올해 총규모는 5억 7,180만 원이며, 지급액은 1인 어업경영체의 경우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30만 원이다.

수당은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 등을 별도로 방문해 수령할 필요 없이, 본인 명의의 군산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으로 충전 지급된다.

지급된 수당은 관내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앞서 군산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았다.

관내 1,381명의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이 신청했으며,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24명의 어업인을 제외한 최종 957명의 어업인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어촌지역 활성화 및 어업인 기본소득 보전을 위해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어업인 민생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기적의 놀이터, 가을 창의놀이 ‘풍성’

11월까지 운영

정읍시가 기적의 놀이터에서 운영하는 ‘창의놀이 프로그램’이 가을을 맞아 아이들에게 자연 속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블록놀이와 생태놀이, 전통놀이 등 요일별 활동에 지난 4월부터 총 890명이 참여했다.

기적의 놀이터 ‘창의놀이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탐색하며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4월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며, 요일마다 특색 있는 활동을 제공해 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를 돕는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빅블록과 자석블록 등을 활용해 나만의 집과 모임터(아지트)를 만드는 ‘블록놀이’를 진행

한다. 수요일에는 곤충과 식물, 자연물을 활용한 보물찾기와 액자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생태놀이’를, 금요일에는 투호 던지기과 팽이 만들기 등을 즐기는 ‘전통놀이’를 운영한다.

주말에는 분기별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놀이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램에는 기적의 놀이터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과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단체 참여도 가능하다. 다음 달 수시반 참가자는 오는 18일까지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아동과 보호자는 정읍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솔리메타누리길, 안심가로등으로 더 밝게

익산시가 솔리메타누리길의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익산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하고 월드비전이 주관하는 ‘2026 안심가로등 플러스 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동산동 일원 익산시 솔리메타누리길 중 약 800m 구간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20본을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지원된다.

사업 대상 구간은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이용하는 공원 연결도로지만 일부 구간에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 보행에 불편이 있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 이용자들의 보행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또한 설치되는 가로등은 낮 동안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는 친환경 시설로,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장점도 있다.

한편, ‘안심가로등 플러스 사업’은 안전사고 등에 취약한 지역에 친환경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회공헌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을 후원하고 월드비전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시설 설치와 지역사회 협력 등을 담당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미래세대 지역 정착 기반 강화 2(題)

완주군,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 확대

완주군은 지역사회 내 아동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 및 양육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완주군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 참여 상점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핵심 공약 기조에 맞춰 추진된다. 완주군은 아동친화상점 확대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아동 동반 가족 고객의 방문을 유도해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신청 대상은 완주군 소재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의 이용이 잦고 아동 편의 제공이 가능한 상점 및 시설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완주군 아동읍무즈퍼스사무

소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아동친화상점으로 인증받기 위한 필수 기준은 △아동(18세 미만) 전용 메뉴 1개 이상 판매 및 메뉴판 표시 △어린이날 주간) 및 아동권리 주간(11월 아동학대예방의 날 주간) 내 아동 동반 고객 대상 10% 할인 혜택 제공 등이다.

최종 지정된 상점에는 '완주군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 인증 현판이 부착되며, 군청 누리집과 홍보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상점이 희망하는 맞춤형 아동 편의용품을 최대 30만 원 상당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지역산업 연계 교육혁신 ‘맞손’

순창군이 소규모학교 교육혁신과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순창교육지원청,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손을 맞잡았다. 순창군은 지난 15일 순창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을 비롯해 사업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육혁신 모델을 발굴·운영하고, 소규모학교 교육혁신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대응투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진로·진학 교육 활성화에도 힘을 모은다. 순창군과 교육지원청, 진흥원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학교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지역산업과 연계한 진로·진학 교육을 활성화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인재 육성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사진=농협 남원시지부>

농협 남원시지부, 우리쌀 소비촉진 ‘앞장’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김종주)는 16일 농심전심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농산물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을 남원시 운봉농협 본점에 실시했다.

농심전심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아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범농협 실천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의 소

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주 지부장은 “농심전심운동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쌀 소비 확대와 농업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봉농협 오용담 조합장은 “이번 캠페인이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쌀의 소중함을 알리고 쌀 소비를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국지도 60호 도로개량 타당성 재조사

KDI 등 22명 현장 합동점검

5차 건설계획 반영 사업비 증액

남원시는 지난 15일 기획예산처에서 국지도 60호(주천~고기) 도로 개량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획예산처 산하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 익산지방국도관리청, 전북도 등 총 22명의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모여 사업 노선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국지도 60호(주천~고기) 도로 개량사업은 주천 은송리와 이백 하거리 경계에서 구룡폭포를 거쳐 고기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 연장 L=6.59km,

B=10m(2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됐으며, 노선 검토 및 기본 설계 결과 당초 추정 사업비 대비 20% 이상이 증액돼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거치게 됐다.

검토된 노선은 기존 국립공원 구역을 관통하는 기존도로를 활용해서는 선형개선 등 시설 개량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돼 공원 구역을 최대한 우회하는 노선으로 검토됐으며, 터널 2개소와 교량 4개소를 추가해 사고위험을 줄이고, 설계속도(40km/h)를 확보하는 도로로 계획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또한 본 노선 검토를 위해, 3차레의 관계기관 협의와 우회노선에 대한 기재부 사전협의, 기술자문회의 등을 거친바 있다.

육모정에서 올라가는 기존 도로는 선형이 매우 불량하고 겨울철 결빙과 낙석 등으로 잦은 도로 통폐와 도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였다.

금번 도로 사업을 통해, 정령치, 노고단 등 지리산권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향상 시키고, 내기·고촌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에너지고 교육과정, 피지컬AI와 연계해야”

군의회, 피지컬 AI 융합교육 촉구 미래산업 연계 인재양성 강조

완주군의회 윤여언 의원은 16일 열린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수소에너지고 등학교 피지컬 AI 융합 교육플랜 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완주군의 미래산업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수소에너지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수소와 피지컬 AI가 결합된 융합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완주군이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의 거점으로 지정되며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산업 변화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수소 분야에 한정된 수소에너지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역 미래산업과 연계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완주군은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 거점으로 지정된 데 이어 사업추진단



<사진=완주군의회>

을 출범시키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산업환경 변화에 비해 지역 인재 양성을 교육체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선정된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지만, 교육과정은 수소 분야 중심으로 구성된 피지컬 AI 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역에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재가 없다면 산업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기 어렵다”며 “완주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과 지역 특성화고 교육과정이 서로 맞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에너지고등학교의 기존 교육 기반을 유지하면서 피지컬 AI를 접목하는 ‘수소·피지컬 AI 융합형 교육플랜’ 마련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에스더블유케미컬즈, 41억 투자·과제 유치

대덕벤처파트너스 등 15.3억 투자 스케일업 팀스 26.6억 확보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본사와 생산 공장을 둔 첨단소재기업 (주)에스더블유케미컬즈(대표 이승환)가 투자 유치와 정부 과제 선정 경매사를 맞았다.

(주)에스더블유케미컬즈는 지난 6월 대덕벤처파트너스 등으로부터 15.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유망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팀스

(Scale-up TIPS)’에 최종 선정돼 26.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주)에스더블유케미컬즈는 오는 2029년 6월까지 ‘나노다이아몬드 연마 슬러리’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개발(R&D)에 돌입한다.

2019년 설립된 (주)에스더블유케미컬즈는 나노다이아몬드 및 다결정 다이아몬드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나노·다결정 다이아몬드 합성·정제·분산 기술 확보를 통해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나노 물질이 묻치지 않게 하는 ‘단분산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 부품 첨가제, 고정밀 연마제, 윤활유첨가제, 도금첨가제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33,000㎡ 규모의 본사 및 공장을 가동 중인 (주)에스더블유케미컬즈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사회복지 종사자 한자리…노고 격려

사회복지대회 300여명 참석

복지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제20회 순창군 사회복지대회’가 지난 15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복지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

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 축하, 사회복지 윤리선언 낭독,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예민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미래산업담당관 신설 의결 2027년 재정 효율화 주문

완주군의회(의장 성종기)가 16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완주군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 군정과 군민 생활에 직결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의회는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과 개선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군정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했다.

성종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결산은 예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



성종기 의장

작”이라며 “지난해 예산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과 군정 방향을 더욱 꼼꼼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AI 미래산업담당관 신설과 수소에너지고 개편 등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조직 변화가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기오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는 남비성·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을 군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현안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재배치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케어푸드·메디푸드 산업화 협약

전북대병원·바이오연구원과 협력 인체적용시험·임상연구 등 협력

남원시는 지난 14일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맞춤형 케어푸드·메디푸드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능성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로 케어푸드·메디푸드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능성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이어지는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맞춤형 케어푸드 및 메디푸드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과제 발굴과 정보 공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식품의 기능성 평가 및 인체적용시험·임상연구 연계 △연구시설·장비·인력의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종모 남원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연계해 기능성식품 분야의 연구성과가 실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

입주기업 모집…4개실 대여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 화장품 및 바이오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노암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남원바이오테스팅센터는 지상 4층, 연면적 4,054.11㎡ 규모의 바이오산업 지원시설로, 화장품 시험·검사센터와 피부임상센터, 기업지원시설을 갖춘 복합 지원 거점이다. 특히 4층에는 기업입주실과 공동연구실, 교육실, 화상회의실 등을 구축해 입주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입주 공간은 건물 4층에 위치한 ‘사무/연구 복합형’ 기업입주실 총 4개 호실(임대면적 45.73㎡ ~ 50.16㎡)이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향후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홈페이지(nbn.re.kr) 또는 남원시청 홈페이지(namwon.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leejin@nbn.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가공창업유통연구회 쌍치면 홀로어르신에 명절 선물

순창군 가공창업유통연구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5일 쌍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물품 기부 행사’를 열고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해 창출한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명절을 맞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 소속 12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했다. 회원들은 농특지와 요거트, 장류, 동결건조 딸기잼, 산아초침, 강정, 국산 꿀 등 각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가공한 다양한 제품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순창군 가공창업유통연구회는 제1·2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유통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번 기부 역시 농산물 가공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을 실천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지사협, 청년들과

사회적 농장 현장 탐방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백청열)가 지난 15일 완주군 상관면 완주허브랑협동조합에서 지역복지네트워크 분과위원과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부 학생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완주군 우수 사회적 농장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농업이 지닌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의 농업자원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계절식물을 관찰하고 사회적 농업이 이뤄지는 농장을 둘러보며 농장의 주요 활동과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이어 편백숲을 걸으며 호흡과 휴식을 통해 자연 속에서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완주허브랑협동조합의 사회적 농장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허브와 천연소금을 활용한 ‘허브솔트 만들기’ 체험에도 참여했다.

백청열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농업과 복지가 연계된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민·관·학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미래영농조합법인 김제시 취약계층에 계란 기탁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16일 미래영농조합법인(대표 이귀연)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계란(30구) 200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탁된 계란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귀연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풍성한 추석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순 성덕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미래영농조합법인에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해 따뜻한 이웃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무주 안성면 카페 '정원산책' 장학금 100만원 기부

무주군 안성면 “정원산책”(대표 홍성학·홍슬기)이 16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부했다.

홍성학·홍슬기 대표는 “교사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 같다”라며 “장학금에는 무주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군민과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라며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정원산책이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앞으로도 마음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페 “정원산책”은 이들 부부가 직접 가꾼 꽃과 식물, 탁 트인 덕유산 자락의 전경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으로, 자연 속에서 커피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김석기 씨, 10년째 명절맞이 삼계탕 후원

올해 추석에도 나눔 실천 삼계탕 50박스 기탁

진안군 동향면 외유마을에 거주하는 김석기 씨가 올해 추석에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삼계탕을 후원하며 10년째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김석기 씨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삼계탕을 후원해 왔다.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매년 명절마다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

이 되고 있다.

이번 추석에도 김석기 씨는 정성껏 마련한 삼계탕 50박스를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후원했다. 후원된 삼계탕은 동향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르신 및 저소득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석기 씨는 “매년 명절이 되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먼저 생각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통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동향면 외유마을에 거주하는 김석기 씨가 올해 추석에도 정성껏 마련한 삼계탕 50박스를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후원했다 <사진=진안군>



“추석 밥상 든든하게” 정읍 새마을부녀회 김치 나눔

정읍시새마을부녀회(회장 최금순)가 추석을 앞두고 김치 500포기를 담가 홀몸 어르신과 소외계층 등 230여 가구에 전달했다.

부녀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정읍시 새마을회관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 나눔’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외롭게 보낼 수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 25여 명은 이틀 동안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며 김치 500포기를 정성껏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소외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 230여 가구에 전달됐다.

최금순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온정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 운주면지사협 추석 송편 나눔

완주군 운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5일 추석을 맞아 관내 홀몸어르신 및 저소득 50가구를 대상으로 추석맞이 송편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송편을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명절 인사를 나누고, 이웃들의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송편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명절을 기다리니 외로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송편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주어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선재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재성, 남원시에 추석맞이 성금 500만원 기탁

남원시는 16일 (주)재성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성금을 기탁한 (주)재성은 평소에도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기업으로, 명절과 연말연시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안광섭 (주)재성 대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풍성한 정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온정을 나누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양종모 남원시장은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청소년 활동 증진 공로

완주군청소년수련관 흥기준 청소년지도사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모범 청소년 지도자’로 선정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청소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지도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흥 청소년지도사는 완주군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왔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지도에 힘쓰고,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청소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지역 청소년 활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완주=김명곤 기자



SGC에너지(주), 군산시에 ‘사랑의 백미’ 전달

SGC에너지(주)(대표이사 박준영)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16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SGC에너지는 군산시 미성동과 소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백미 10kg 총 200포(각 100포)를 기탁했다.

SGC에너지(주)는 매년 설·추석 명절과 김장철마다 지역 이웃을 위해 백미와 김치를 꾸준히 기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학생 장학금 지원, 연탄·등유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미성동 및 소룡동 내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명절을 앞두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식생활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가을산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위험,
산악사고 주의!

하나, 해지기 전 하산 (랜턴지참)
둘, 여벌 보온 의류 필수
셋, 미끄럼 방지 등산화 착용
넷,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

〈一事一言〉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난 이야기

곽보경

작가·前 국회정책연구위원

어린왕자를 다시 읽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책장은 이제 낡아서 모서리가 동글게 닳았다. 밑줄 그은 자리도 그때마다 달라져 있다.

어릴 땐 그냥 동화였다. 별에 사는 꼬마, 장미 한 송이, 이상한 어른들. 여우가 하는 말은 솔직히 지루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었다. 중년이 된 지금, 그 한 문장이 자꾸 나를 굶는다. 다시 읽을 때마다 매번 다른 자리에서 걸린다.

누군가를 길들인다는 건 문장을 완성하는 일과 닮았다. 기다리고, 다듬고, 다시 기다리는 일. 그땐 몰랐다. 사랑도 문장처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냥 휘갈겨 썼다. 의미보다 감정이 앞섰고, 감정보다 이기심이 났었다. 지금 다시 쓰면 같은 문장이 나오지 않는다. 그게 나이 든다는 뜻인 것 같다.

장미도 마찬가지다. 예전엔 그냥 귀찮은 존재로 봤다. 투정 많고,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 지금은 안다. 그 허영은 불안의 다른 얼굴이었다는 걸. 화려해 보이려는 인물일수록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쓴 소설 속에도 그런 인물이 몇 있었다. 매일 가시를 세워 스스로를 지키지만, 결국은 누군가 하루 한 번이라도 봐주길 바라는 존재. 그 가시는 방어가 아니라 신호였다. 그걸 알고 나니 내가 쓴 인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른들 장면도 이제 풍자로운 안 보인

다. 왕, 허영쟁이, 술꾼, 사업가. 젊을 땐 낯대 같다고 넘겼는데, 지금은 내 안에 그들이 다 산다. 나는 글자라는 별을 세며 이게 내 것이라 착각하는 사업가고, 박수 소리를 기다리는 허영쟁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다. 누군가 알아봐 주길 기다리는 존재. 작가라는 직업은 그 사실을 매일 다시 확인시켜준다.

길들임은 관계의 은유이자, 쓰는 사람의 방법론이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플롯처럼 반복과 차이로 움직인다. 여우는 말한다. 너는 아직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 그 말 속엔 언젠가는 의미를 주고 싶다는 바람이 숨어 있다. 인물도 그렇다. 처음엔 이름 하나일 뿐인데, 쓰면 쓸수록 숨결이 붙는다. 이름을 부르는 횟수만큼 인물은 살아난다. 애초도 결국 기술이다. 기술 없이는 아무도 길들여지지 않는다.

사막과 우물 장면은 늘 뜬금없다 느꼈다. 지금은 거기서 진심을 본다. 사막은 글이 말라붙은 상태다. 아무 말도 안 나올 때, 나는 사막을 걷는다. 며칠이고 걷기만 하는 날도 있다. 그러다 불꽃 우물이 나온다. 갑자기 떠오른 한 문장.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좋은 문장은 멈출 줄 아는 문장에서 나온다. 침묵도 문장의 일부라는 걸 이제는 안다. 여백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그 우물에서 배웠다.

마지막, 어린왕자가 떠나는 장면. 젊을

땐 시작이라 감탄했는데, 지금은 무섭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회귀다. 몸을 버려야 별로 돌아갈 수 있듯, 원고도 손을 떠나야 비로소 독자의 것이 된다. 완성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일이었다. 나도 매번 원고를 끝낼 때 그 기분을 느낀다. 기쁘면서도, 한 장면 더 쓰고 싶은 충동. 보내고 나면 다시는 고칠 수 없다는 게 늘 낯설다. 그 낯설에 익숙해지는 게 작가로 사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제 어린왕자는 철학서가 아니라 일기처럼 읽힌다. 네가 네 장미에게 쓴 시간이 장미를 특별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지금 내게 경고이자 위로다. 빨리 쓰면 가벼워지고, 오래 쓰면 깊어진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쓸 때마다 묻는다. 이 문장에 내가 얼마나 머물렀는가. 답을 못할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결국 어린왕자는 어른이 된 모두에게 천진함을 회복하는 기술서다. 세상은 어른이 되라 하지만, 이 책은 그림에도 아이로 남는 법을 일러준다. 그 방법은 순진해지는 게 아니라, 세계를 다시 한번 믿어보는 용기에 가깝다. 그 용기가 없으면 문장도 마른다.

오늘도 나는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의 물을 한 바가지 길어 올린다. 그 물로 문장을 적는다. 그게 나이 들어 다시 읽어야 알게 되는 것이다.

ㅣ 독자투고 ㅣ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주세요!



정읍소방서 관할에는 68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으며, 수많은 정읍 시민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공동주택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재난 현장에서 뛰는 소방관의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단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문제다.

지난 2024년 3월 23일,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중 가장이 숨지고 두 자녀가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다. 당시 화재 현장엔 전체 380여 가구 중 78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였는데, 뿔뿔히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단지 안으

로 진입하는 데 무려 5분 이상이 지체되었다. 소방차 진입 지연이 참사로 이어진 가슴 아픈 사례다.

정읍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하 주차장 없이 지상 주차장만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협소한 공간 탓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이중주차가 일상화되어 있다. 낮 시간대는 그나마 낫지만, 심야 시간이 되면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차량이 들어선 풍경을 종종 마주하곤 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란색 네모 박스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전용구역 내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노면 표시를 훼손하는 등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 단계별로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화재 발생 시 1분 1초는 누군가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골든타임이다. 소방차가 신속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방차 전용구역을 항상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정읍소방서 소방행정팀 팀장 소방경 유성현

사설

예산 따오기만 하면 끝인가, 불용·반납부터 줄여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용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수납액과 불용액, 과도한 이월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북에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하거나 받아야 할 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결특위는 환경산림국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등의 결산을 심사하면서 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과 사업비 집행잔액, 이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는 지방비를 제때 매칭하지 못해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는 문제까지 제기됐다. 각종 기금을 쌓아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예산의 불용은 단순히 돈을 쓰지 않았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예산부터 편성했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면 그만큼 복지와 민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 시급한 분야에 투입할 기회를 빼앗은 셈이다.

미수납도 마찬가지다. 받아야 할 세입과 보조금 반환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의 건전성이 흔들린다. 특히 비슷한 미수납이 해마다 반복된다면 단순한 업무 지연이 아니라 징수와 사후관리 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더욱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국비 반납이다. 전북은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때마다 정치권과 행정이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지방비 매칭 부족이나 사업 준비 미흡으로 돌려보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비 확보 실적을 홍보하는 것만큼 확보한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집행했는지도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

도의회는 지적도 일회성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과감히 조정하고, 상습 미수납은 원인과 책임을 따져 구체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비 반납 사업 역시 원인을 낱알이 분석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자원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필요한 곳에 편성하고 제때 제대로 쓰는 것까지가 재정 행정의 책임이다. 전북도는 매년 되풀이되는 미수납과 불용 지적을 더 이상 관행처럼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

▲오늘의시

매미 / 차 옥 혜

가을이 되고서야 하늘을 본다
날마다 팔 다리에서 온몸으로 마비증세가 퍼져간다.
아무리 노래를 해도 울림이 없다.
여름날 몸을 떨던 나뭇잎이 어디론가 사라져 간다.
어찌하여 들꽃들은 무릎 꿇기 시작할까
왜 나무는 끝내 입을 다물고 있을까
여름내 노래 불러준 모든 것이
왜 나를 거부하고 있을까
이 삭막한 대지를 적시는 비는 무엇인가
이제야 끝없는 물음에 하늘만 자꾸 넓어져 간다.

시인 약력 : 1945년 전주 출생. 전주여고와 경희대 영문학과와 동국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84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경희문학상과 경기펜문학대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는 '깊고 먼 그 이름' '비로 오는 그 사람' '발아래 있는 하늘' '휴바람 속으로'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영리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8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8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8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을 읽는 가장 바른 시선,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3

‘환승·미식·공연’ 익산역 원도심 소생 프로젝트

호남의 핵심 관문이자 철도 교통 중심지인 KTX 익산역과 역전 원도심이 시민의 뜻에 모아 대대적인 공간 혁신과 상권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익산시는 16일 시청에서 최정호 익산시장과 시민, 각계 전문가들이 마주 앉아 격의 없는 토론을 펼치는 ‘시민과 함께 여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익산시는 ‘익산 대전환,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시정 철학 아래 민관 합동으로 꾸린 ‘원도심 소생 추진단’이 △도시 개발 △상권활성화 △문화관광 3개 분야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며 원도심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번 자리는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 발표를 벗어나, 학계, 전문가, 기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원도심 소생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편집자 주〉



민관 협의체 ‘원도심 소생 추진단’ 실행 로드맵 복합환승센터·공실 해소·K-푸드 관광 육성

◆ 하루 1만 8천 명 오가는 익산역...골목상권으로 연결

익산역은 KTX 호남고속선과 일반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국가 철도망의 핵심 요충지다. 2024년 철도통계연보 기준 연간 이용객은 682만 명, 하루 평균 1만 8,679명이 드나든다.

하지만 압도적인 철도 인구에도 불구하고 역 밖으로 나오지 않는 구조적 한계 탓에 원도심 유입률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다.

역사 바로 앞 중앙동 일원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를 넘었고, 보행자와 자동차 혼용 도로로 인한 통행 불편과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아왔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중앙동 상가 중 실제 영업 중인 곳은 470곳, 공실은 279곳으로 공실률이 38%까지 치솟는 등 상권의 연속성이 끊겼다. 특히 상권 매출의 60.6%를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20~30대 소비 비중은 17.6%에 불과한 데다, 주말에만 반짝 매출이 몰리는 구조가 고착화했다.

시는 익산역 원도심 일대가 △상권 △문화시설 △주거단지 △철도 이용객이라는 4대 자산을 갖추고도 정작 △소비 연결고리 △킬러 콘텐츠 △주차 공간 △광장이 없어 외곽 신도심으로 소비

가 유출되는 악순환을 겪어온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3개 분야를 주축으로 ‘모이고(익산역·환승센터), 흐르고(보행·보행가도), 머무는(원도심 상권·문화·관광)’ 선순환 구조를 그렸다.

◆ [도시개발] 복합환승센터 기반...‘공간 재편’ 도시개발분과는 하드웨어 혁신을 통해 ‘사람이 흐르는 도시’를 만든다. 핵심 축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된 ‘익산역 복합환승센터’다.

국비 확보 근거를 마련한 시는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과 손잡고 3층 선상 역사 증축(1,800㎡) 시설개선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연계한다. 또 환승·주거·상업·산업 복합 거점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11월 국토부 컨설팅을 거쳐 2028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연계도 강화한다. 청년시청,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등 기존 중앙동 뉴딜과 새뜰마을 사업 거점을 보병 동선으로 묶는 한편, 국비 최대 250억 원과 건축 특례가 지원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공모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중앙동 일원을 대상으로 국비 최대 242억 원 규모의 범부처 시범 사업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공실 상가를 매입·정비해 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대표 콘텐츠 제작, 입주 청년 창작·창업 지원 등을 패키지로 묶어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진입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익산역에서 문화예술의 거리까지 어린이, 노인, 교통약자 등 누구나 다니기 편한 보행 친화 가로를 완성한다. 밤에는 철도 역사를 테마로 한 감성 미디어 조명을 역사 광장과 주요 도로에 둘러 야간 상권의 활력을 북돋운다.

◆ [상권활성화] 골목형 상점가·공실, 이야기 있는 창업 공간으로

상권활성화분과는 빈 점포와 침체된 골목을 살리기 위한 4대 자생 전략(조직화·공간 활성화·특화 브랜딩·소비 연결)을 가동한다.

상인들이 주체가 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넓혀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국비 공모 지원의 길을 열고, 텅 빈 점포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와 창업가들의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원도심만의 독보적 색깔을 입히는 미식 특화도 본격화한다. 중앙동 일원에 추진 중인 ‘치킨로드’와 전통시장 야시장을 연계하고, 영정동 근대 역사를 결합한 스토리텔링 상점가를 육성한다.

방문객의 발길을 실제 매출로 바꾸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익산다이어로움과 연계한 혜택, 스탬프 투어 할인 쿠폰제를 상시화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이 단순히 역을 거쳐 가는 것을 넘어 ‘모이고 머물고 소비하고 상권을 키우고 다시 찾는’ 선순환 소비 생태계를 안착시킨다는 복안이다.

◆ [문화관광] 역 광장 상시 무대화...근대유산 미디어아트·K-치킨로드

문화관광분과는 ‘익산역을 문화관광의 출발점으로’ 삼아 9대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익산역 앞은 주말마다 버스킹과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이 끊이지 않는 열린 문화 광장으로 변신하며, 순환형 시티투어 노선을 동부권과 서북부권 2개 축으로 전면 개편해 관광객을 원도심 상권 한가운데로 유도한다.

역 인근에는 원도심 관광 액커시설인 ‘익산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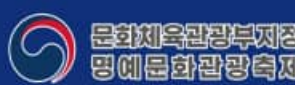
행자 웰컴센터’를 구축해 집 보관, 쉼터, 관광 플랫폼 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웰컴센터를 기점으로 익산역과 중앙동, 송리마을, 춘포역 근대역사자원을 엮은 ‘사운드 워킹 투어’와 오싹한 심야 도보 투어를 주민 주도 마을여행사와 함께 상설화한다.

근대건축자산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와 디지털 야간 경관을 조성해 2027년까지 ‘밤이 더 빛나는 원도심’을 만든다. 여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원도심 치킨로드를 결합한 ‘국제 K-치킨&푸드엑스포’를 통해 전국의 미식 관광객을 끌어 들인다.

내년에는 이리역 폭발사고 50주기 문화콘텐츠와 원도심 축제를 하나로 묶는 도심형 대표 축제를 선보여 지나치는 도시를 머무는 축제 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도출된 시민 제안을 소관 부서별로 지정해 중·장기 과제로 정리하고, 시 누리집을 통해 정책 반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민예문화관광정책

28th 김제 지평선축제

2026. 10.01 ~ 10.0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일원 벽골제 중심

주최/주관: (사)김제지평선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김제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